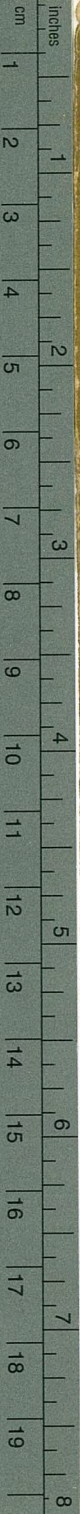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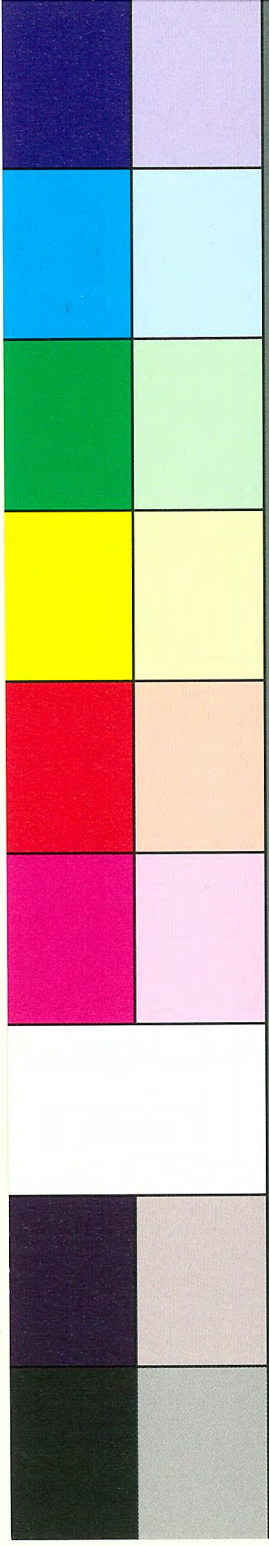
花仙鳳
册卷下
石鐫策田

93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봉선화하

(두) 형님그러치안은일이 잇습니다 일은항조면 박부인과 직접의논이되여야
방화가업슬것이오 또형님과는 협의시러온일이잇스니 우리도모지 그부인을
뵈옵고 이실직교후후 결의남미를항심사다

(갈) 응 자네말이 올은말일제 우리드러가세

항고 춘영은압셔고 두형은뒤을셔셔 안으로들어가 박씨잇난방문맞게셔 기침
두어번을항고 로과를불너닌다 할말이디답을항고 나오더니 손짓을휘휘하며

(마) 에그웨이러케 드러오섯습닛가 드러오시랴거던 바로뒤셔방남씩셔만 드
러오시는것이안이라 두분씩웨드러오셔요 글세

(춘) 아모넘녀말고 어셔드러가세

로과가다시말을못항고 문을열고 압셔드러가며

(마) 아씨이딕 셔방남게셔 아씨를뵈오랴 드러오섯습니다

(박)

박씨가분홍모음을 진정치못항고 정신업시 안젓는초에 또쥬인남조가 드러온
다는말을듯고 가슴이덜씩 니려안져 아모말도못항고 잇는딕 춘영과 두형이
가압혜와 공손히안즈며

(두) 놀나지 말으십시오 저는 이 유인의 처남되는 두형이라는 사람이 온디 부인
 제신덕을 스면수람하야 애사지온터이올서다
 (박)

(두) 남네가 유별하온디 이러케되옵고 말씀엿줍는것이 미안하오나 저의미부
 글출영이가 본리부랑호즈격이안이온디 부인이 누구신지모르고 환거하논터
 에 불경호마음을 두었다가 구두죄놈의 구초를듯고 삼씩놀나 이왕잘못두었
 던 무음을사과도하고 부인의원억호신 일을설쳐도하야 드릴의론을하올터이
 온디 그디로는 혐의씩어셔말숨을 엿줄슈업습고 아조이즈리에서 남미의의
 를미즈셔셔 피츠시스럼이업셔야 의론이 등창을듯하와 드러와습고 저로말
 호오면 부인게셔 심복으로부리시던 은네의부락을듯습고 부인게선데를스
 면찾다가 텨우선조호와 제미기에와 계시자제마로와습니다 더와도남미를
 평하샤 아조삼남미되음이 엿더하올는지오

박씨가 감안하 두형의 일장말을드르니 모다진정에서 나오는말이오 일호도식
 사가업드듯호지라 강잉히디답을호다

(박) 죽게된 사름을 이처럼구제하야주시고 남미의의까지 및자하옵시니 엿지
 감히 응중치안이호오릿가 아모도록 천동심으로 알으셔 내설현을 좀하야쥬
 읊소서

(갈) 그다썸이오닛가 괴위구두죄놈의 확실호징거를 잡은이상에 녀려호것이
 무엇잇습닛가

(두) 아모럼그러치오 싯잡은이 밋잡은이라고 한미지 증거자를확실히 잡아노
 은이상에 세상업기로 설분못호겟습닛가

(박) 괴위남미를 평하신터에 제년치마 데일적스오니 말씀을존경치 말으읍소
 셔 그갓치존경을호시면 칭소호고 셔어호은모음이 도로혀 성기나이다

(갈) 그말이올은말일제 그러면 나는맛오라비마되고 두형이논 다음오라비마
 되고 부인을낭은 싯해누의마되게 인제부러논 허계를 할슈박게업네

(박) 남미가된이상에 위디가 무엇이셔오
 (갈) 괴왕은 피츠혐의지디가되야 리약이를 못호얏거니와 인제는홍허물이업
 시되얏스니 저제저제찬찬히 리약이를호게

(두) 형님감안이게심시오 제누나가 궁금허하논디 내가몬져 은예리약을호
 겿습니다

하고 은예미맛다가 간신히노여셔 앓흔다리를살고 동작이건너오던말로
 평보에게붓들녀 드러가잇스며 달련당하논일로 구씨편지를 중간쓰음으로물
 니보고 박씨의천정으로 가지안은것을안일로 저기에 동정을호고 박씨거취
 를 탐지하야 달나논말로저기가 찾노라고신고하던 일장을설명호후

(두) 니가은네를 못가히사랑했다고 이러케 말하느것이안이라 범절이 석안상
 훈중상전에향하는 정성은 지금세상 단벌이던걸
 (박) 그이눈나못흔상전을 잘못만나서 못당할고성을 당할것을 생각할면
 에사못차게 불상호오이다 그리면그이가 리가의집에 그져있나오 옴바닥에
 가있나오

(두) 내집으로 즉시되려다 두고십지마는 그리노라면 평보와 왓지것결할면누
 나찾는일에 방히되될넘려되야 저도급지안타하고 나역시초초 변통할자
 으로 그뒤로두고왔스닛마 아즉은 그이마 평보의집에 잇슬러이지

(박) 옴바닥이악이를 대강드르신뒤에 즉시되므로마셔서 은네췌쳐를호야
 십시오 리마무슨학대를 하는지도 알슈업고 저도닉소식을몰나 여복궁금
 히호겟슴잇마

(갈) 여보게 두형이 누나의말이 을흔말일세 오날날즈네마
 곳떠나마셔 이런
 이악이를 세세히저다려 할뒤에평보를 전벽을준뒤도 은네을되려다
 즈네
 집에다두고 리일곳오게 평보준돈이 즈네게업거든 내게잇는것을 위선
 마지
 고마게

(두) 감아나게시오 마더리도 누나의리악이나 듯고셔오 여보게누나당초에
 고
 부간에 무슨일로 귀각이나고 락티지설은 엇지히셔 난말이며 천
 덩에는 엇

진곡절노 마라고하던마

(박) 니마불민흔사혹으로 식부모의눈박게 난것이니
 마 이른한것이어업습고

락티란말은 나역시곡절을 모른다 감기처럼몸살로 덩신모로고
 알난뒤
 추
 월이라난 으히종이의 팔도주무르고 다리도치더니 웬피덩이
 호나를
 이불속
 에서 발각하얏는디 그척마참 식부모의외분이 문병을오셨다가
 보시고 손슈
 가지시고 큰방으로건너가셨는디 그피스덩이는 덩녕코
 내몸에서싱긴것은안
 인것이언마는 내이불속에서 나온것을 무엇이라발명할
 말이업셔
 오늘날사
 저 그누명을 쓰고살아잇기는 마장이 줄업귀국하는
 날을기다려
 나의정정
 벽흔발명을 할즈흙이러니 졸디에천덩으로
 마잇스라
 호습시기
 마장도업는디
 엇지슬하를 떠나
 마오릿
 마고
 지지
 지삼말습호야도
 괴어
 히
 마셔
 몇
 희
 간
 잇
 다
 마
 네
 남
 편
 도
 라
 오
 거
 든
 다
 시
 오
 라
 하
 시
 고
 억
 제
 로
 떠
 나
 보
 니
 시
 니
 지
 호
 즈
 되
 야
 스
 세
 부
 득
 이
 교
 구
 나
 에
 들
 드
 러
 안
 졌
 더
 니
 이
 디
 경
 이
 되
 얏
 셔
 오

(두) 형님 그만하면그집일을 다짐작할일이올시다
 오날로교군을 두피질너
 더

누의를 충청도천덩으로보내고 몇히후미부경현이
 마
 도
 라
 오
 거
 든
 우
 리
 마
 증
 인
 이
 되
 야
 누
 의
 에
 발
 명
 을
 호
 야
 주
 어
 야
 할
 러
 이
 오

(갈) 즈네말이 을키는호네마는 구두쇠놈은 엇더케쳐치를
 하여야을흔가

(두) 그놈이오 될수가잇지오 그놈의하던말을 한
 마
 디
 세
 지
 말
 고
 초
 려
 로
 췌
 고
 닳

히 년월일을쓰고 그놈의성명밋히 도장을바다두엇다 그 증거물을민들지오

(갈) 그싸짓놈이 도장이 잇겠나

(두) 도장이업스면 슈장이라도 바다두지오

남리두사람이 죽이사랑으로 나와 구두쇠를 잡아올여 다시찬찬히말을 무르며 모조리 필기를할후 년월과성명을쓰고

(두) 이이도장이잇거든 네성명밋히다 씌어라

(구) 저노도장이업슴이다

(두) 도장이업거든 여기다 그 슈장이라도 두어라

(구) 거기다가 슈장은 웨두랍시오

(두) 응그것은 이다음에 무슨일이싱기더러도 네가혹싼쇼리할가바 징거물을

삼게

(구) 이디경에 이실직고를할음고 쏘쇼리할리가잇슴잇가 슈장을두어드립지오
하고 갈키웃흔손을 제성명밋히다 넘죽퍼노코 붓으로일기설기 그리어 두형압

해노으며

(구) 여기잇슴이다 이제는저를 노아쥬십시오

두형이가 그디답을 밋쳐못히서 키가구척식은되는자 삼스명이날바람잇게 드
러와스랑마루로 성금을나서 쥬인이누구시오

(갈) 예내가 쥬인이오

그자가 두형을 그라치며

이량반은 누구시오

(두) 예 나는 쥬인의 처남되는 사람이오

(그자) 성명이 누구시오

(두) 예차 두형이라든 사람이오 되들은 누구신디 이러케무르시오

(그자) 누구노 알아 무엇히 츠츠알면알지

항더니 쏘아리셨는 구두쇠를 그라치며

(그자) 너는누구나

(구) 예 쇼인은 러승지되구종 구두쇠을시다

그자가 제동모 하나를 눈짓을할야 안으로드러보니고 쥬머니에서무슨쇼회한

장을 너여노으며

잡혀스니 모다가자

항고각기쌍은이에서 포승을너여 면저쥬영과두형을 잔씩묵고 쏘구두쇠씩지호
스에묵더니 안으로드러가던 놈이박씨와역시 로파를묵거 압세우고나오더니

여보게안이잇나 거형을좀식이게 응거정말게

항더니 쥬영에 싸귀한번을 썩치며 이놈아 레츠니라

(갈) 여보내가 무슨 죄에 잡혔는지는 모로겟쇼만은 말도드제안이하고 대민티

접을후기로 이러케 함부루하노슈가잇쇼
그자가 또말길로 한번을보기도케차며 대민대민 형세를잘하야야 대민이지티

강이에 관조자만쓰면대민이야
(갈) 형세라니 내그형세잘못했것이 무엇인디 법은멀고 쥬먹은곳갑다고 그티

들에게당장 욕은당하기는올나 이놈이무죄히 죽을리난업것지
(그자) 이이보아라 레츠달나잇가 되집어우리를으른다 을너서무슨호함을볼사

오나네가량반자세를 아모리하야도 우리레츠는 안이쥬고못빅일나
하고 형앙이무상한지라 두형이가 눈짓을하며

형님그러치안이하오 더부네들의 응식은박홀티 무엇으로지니겟쇼 잇는티로
다쇼간 인스를치루시오

춘영이가 분나는티로하면 그즈들손의 띠여서더호것을 맛들리도 엽전한훈안
이줄러이지마는 두형의말에못의의여 돈빅이나니여 여러놈들을 각기난호어

쥬니 그자드리그제는 과히학디는안이하고 바로양쥬음으로 티리고 드리웃더
라

그떡난 완고시티라 구슈의구구가 엇지굉장하던지 방울호변만 셨녕하면 야츠
웃흔관츠가 긴티답을하고 각촌으로 나가는날이면 돈양쇼필이나 가진빅성이

범이나 맛난듯이 별별셨던제일이라 크고적고 관츠를맛나 관츠를호변만 轟으
면 기동썩리그 터럭솟는티이라 양쥬구슈 정씨는본리우디사름으로 그즈적어
라던지지식이즈못 지적그되야 양쥬구슈가된것이안이라 한씩은수를잘맛나져

의누의를공소청년시에게 식집을보내고 그런비로 구슈를엇디 헛난디 날마다
적성권축으로 처결하는송스그하나도청안이고 처결호것이업는중 식문안최그

그구두쇠에말을듯고 박씨를티리러 감악골을왔다그 동리장당이모여와 구두
쇠씨리는통에 혼이셔도주를하야 그길로 제고모를차져그보고 스정을말하고

청축을단단히하엿더라
최가의고모는 누구인고하니 즉 시이양쥬구슈로잇는 정씨의소실이라 최성녀가

제족하의말을듯고 정군슈에게 엇디케단단히 청을하얏던지 정군슈가걱정말나
장담하고 그이흔날척시벽에 일병성화착릭(一井星火捉來) 하라는비지를너보

니여 그모양으로 잡아드린것이라
정군슈가 동헌에좌그를하고 춘영일형을 잡아드리더니 두말물지안이하고 추
상갓치 호령부터나온다
(구) 이놈 네성명이 무엇이야
(갈) 민의성명은 갈춘영이을시다
(구) 너는

(두) 차두형이 올시다
 (군) 더계집은 박성녀이다
 (박)

(군) 또더로파는
 (갈) 민의집에잇는 무엇이올시다

(군) 갈마차마 말뜻거라 너는엇지성긴 놈인디남의계집을 썩여다두고 차지려
 잔사람을 무슈관타하얏다니 그러케무엄흔짓을하고 능히무스할사

(갈) 성주계셔 엇던자의 무소를 드르섯는지는 알슈업습니다만은 민이비록년
 천호오나 형세를상업시흥음는 터이안이온디 남의계집을 썩녀낼리도업습고
 초지러은놈덜을썩렷다는 말씀은 근저마아조업는 일은안이올시다

(군) 무슨잔소리아 네말과긋쳐 썩녀간계집이업스면 초지러가기는 무엇이올초
 지러긋드란 말안고

(갈) 너인이업다난것이안이라 민이썩여년일이 업단말습아올시다 조초지종을
 민이계세빅활함을것이니 계세하 통촉함습소서

(군) 말이무슨말이야 이놈소위반명명식이 형세를그긋지로하고 살기를바랄사
 좌우를도라보며
 네저놈업허노코 불기를디번에 툅터지게 썩리여라

흉악한스령들이 디답을길게하고 우루루달녀드니

두형이마 분함을뜻의의여 군슈를쳐다보고

너보시오 일군즈목지관이되셔서 스지혹빅을 조세히치문도 안이하고닷조고조
 로불가부터 썩리라하니 대민디접을 이러케못함넌다

군슈가더럭 분을녀여

(군) 이놈너는 무엇이관디 관장의비평을하고 이놈네몸에는 미가튀는가

(두) 미는관장이되섯다고 유무죄간에 공연히썩리여오
 군가슈반조가났다고 썩면셔

(군) 공연히이놈 유부녀유인하는놈을 못썩리고 누구를썩일사

(두) 우리마 유부녀를 유인하엿셔요 우리는유부녀 노략하라는것을 금흔일밤
 개업소

(군) 그놈싼도하다 네이놈도 마자업허노코 응치를얻어노아라

(두) 응치는 웨싼으라시오 무죄흔우리응치를 싣치마르시고 저상마신부를강
 탈하라는 놈을 싣치하야 법을바로잡으시오

(군) 이놈네마나를글마라치는 모양이나 죽여도죄남을 이놈아사람을 스구
 류하야마며 무슈구라하고 저권놈들을 하느놈흔줄을알야지

함며 미미고찰하야 두스름을엇지몹시썩리는지 박써긋겨헤서보다마 붓그림을

무릅쓰고

(박) 명정지항에 굶어살피소사 저두스름은 빅빅무죄항오나 미을정지항읍시
코의신에말슴을 드르읍소서

(군) 이년무슨잔소리야 런항의간투항고 요악헌년 점자는집살로 형세를잘못
마지코 남편업는동안에 조식비기 팔조를못쳐 남의게 혼변허락항앗스면 전
스논엇지항앗던지 모음을못쳐며어 못치히는것이 안이라

중로에서 갈마놈에게로 도망을항야 초지려간사름을 미나맞치는년이 무슨얼
골을들고 반죽도제짓거리고잇노

박씨마 그소리를드르니 엇지악이나는지 도흔비슈마잇스면 동헌으로뛰어올나
마 소위군슈비를펼질너죽이고 조그목숨을 싣코 심으나 강약이부동항야 그리
항난슈도업고 다만올기만항고섯난티

(군) 구두쇠 너이리코마허오너라

(구) 소인은 아모죄도 업습니다

군슈마 구두쇠에입에서 춘영을 씹어항는말이 나오도록항노라고

오이네야무슨죄마잇겟느냐 도망군이차지러코다 죽도록미만마젓지 이리와
며놈들에게 막맞던경황을 조세히말을 항란말이다

구두쇠놈이 본리착항지못한 심장이라 괴회를맞난감의 북보슈를허불작정으로

잔뜩일거셔 말을훈다

(구) 소인이무엇을알음닛마 다만상년의분부만 거형할싸름이온디 덕아씨마
도주를항야 서산갈마의 집에마잇다고 다려오라시기에 저항조도리에 거역
키어려워셔 차져스습더니 더무엇들이 불문곡적항고 각석형벌을항며 량반
의녀편네좀싸여왔기로 너코흔상놈이 버르장이 업시와셔 짓거리난나 마니
항며 주리를듣는드 한춤을취인드 헝랑구류를 항드항야 거진죽을디경이온디
하느림덕력으로 이리케살아 왔습니다

(군) 더런죽일 놈들보아라 그놈들이 무호동중에 리작호(無虎洞中狸作虎)로남
의계집을 강탈항고 사름사지 스구류악형을히구나 저런죽여도 죄가남을놈
들아 이놈말듯거라 소위너의덕아씨마 도주는무슨일노 헛던구 일호은취말
고 똑바로고할렷드

구두쇠마 그디답을못항고 쥬져쥬져항드마 눈스결에 마즌편을건너드보니 죄
마사서서 눈짓을 련히항는지라 얼뚱짐작을항고

(구) 예바로고항오리드 덕아씨마 엇지되야셔 그디경이 된것을말슴항조면
소인얼플사지 뜻뜻항오이드 덕령감의외분이 그며느림아씨를 특별히 사랑
항섯습니다 속담일반으로 볼면늘마 쥐면세질싸 항시더니 조데서방남씨셔
동경으로 공부를마시고 안이게신디 아씨가 으히를비엿드랍니다

(구) 이히를 비나 남편도 업는동안에 이히를 비였셔 그리셔

(구) 마님이나 령감씩셔신들 이히빈것을 씬에나 아르섯실슈마잇슴넛가 아씨
가 독감으로 편치안으싯넛마 궤독산두첩을겉후 쓰섯드랍니다 그두첩에고
만락티마되야 본식이발각되였는디 그이후로는 령감의외분이 그며느님을
탐락이녀이지를 안이하시셔 별로차지를 안이하시섯더니 그야말로 죠곰도고
귀 할것이엄셔 날마드 밤마드 뒤담을넘어 외인상동이 희괴망측하넛마 령
감과마님씩셔 어이것을 그덕로두엇는 점점더 웃을스고 나서지못할망
신을 하겟드고 교구를차려 천명으로 보드시라하넛디 더스하고 안이갓드
는것을 소인이 교군체를 메고마음난디 아씨마 작구시문밧그로 나아갓다
니 서산으로 넘어갓는편 소로에와서는 교구를 닐려노라하고 돈푼을쥬며
더아리 쥬막에갓 술을먹고 오라고하옵기에

박씨마 그놈의 터분이엄시 거짓말하논 양을드르니 그갓엇지 막히난지 울며
소리를질너

이놈아 야청하늘에 벼락을 마질놈아 너갓언제 산중으로갓드던냐 충청도를
큰길로 강을안이 건너갓고 산중으로엇지 히셔오나나흔죽 네놈의말이 이길
로갓면 접경이라 속여오다갓 무무무미간 네임의로 교구를 닐려노코 술먹고
오마고갓지 너갓교군 여의늑코 술먹고오라던야

구두쇠마 흥흥눈설을 지릅쓰며

아씨일이 이디경이되얏는디 아실지고를 하야지 공연히 성적이만뵈면 상
척인줄알으시오

아씨갓식이지안이헛스면 상견의 거헝하논도리에 웨충청도갓난 탄탄대로
를 닐여노코 산중험도로 드러섯드란말이오

군슈마 박씨를향하야 호령하기를
요년방정맛고 앙큼흔년 감안이잇지못하코 웨이리너다라 짓거리노 구두쇠
야 어셔그다음말을 마즈고하야라

(구) 소인이 술가발을 밧아갓지고 산아리쥬막을차자 닐려갓옵난디 중간에 웨
의관지인 오류명이 웃속 웃속 섰다갓 말을못기를 네갓 웨 교구누이냐 못기
에 엇진곡절을모로고 어름어름 티답을하얏더니 그중한량반이 눈을부릅뜨
고 호령을 설이갓치하며 이놈아그계집이 너계집인디 네갓티려다 엇다두엇
느냐 이놈 갓치갓지 할옵기 소인은 텃동인지 지동인지 알지못하코 이량반
이 웬량반인디 스부댁 너헝을 내계집이니 마니 할부루 말을하느냐 하얏더
니 그량반이 이놈 잔소리갓 무슨잔소리냐 이왕에는 내상견딕 아씨지만은
너즈식갓디 비엿다갓 락티을놓얏스니 내계집이 분명하넛디 네임의티로 엇다
갓다두엇나냐고 당조짐을하논 바름에 스세부득이 그량반다리고 교군닐려

노왔든대를 와본즉 교구은 여전히 노혀잇고 아씨는 간곳이 업습니다 그러그
 량반드리 그길로 소인을축혀들고 이뻘치고 더뻘치며 나모라도작고세고 들
 이라도 다듬어세라고 들복난티 썩 죽을디경이올시다 그러

(구) 그리이 너의상전 덕에서는 다시아모말 업섯나

(구) 감안이계십시오 소인이차려로 엇줍겟습니다 소인이견티드못하야 뒤스
 구멍으로 사름을식여 덕에이스연을 엇유라하얏더니 덕에서는 티문밧게
 를받스길을 헛더져나간 이상에창피스립게 다시 참셜혈이 업고 다시는잇
 샷슬 마쥬티이지 안이홀터이니 그사름에게 차져쥬던지 말던지 다시는딕에
 말이라도오지 말게하라고 썩스어 말슴을호신니 어중간에 불기논놈은 소인
 향나밧게 썩누가잇습잇가 그러하오나 중의도망은 절노나가찾는다고 무인
 공산에서엇의로 간곳이 업서졌스니 찬는슈는 업난티 그량반들은 죽블리디
 로 차즈만노라시니 홀일업시 죽을디경이온티 런만썩밧게 아씨가 서산갈씨
 의집에잇는 소문을듯잡고 허동 디동 차져스습더니 아씨마춤 그집뒤우를
 구멍으로 짜져나와 산곡간으로 도망하논 양을보고 두눈이버연하야 썩츠드
 러마 니케웬일이오 마오하며 그치마즈하온죽 아씨티답이 너마여그를오고
 심히 온것이안이라 너술먹으러 너려간뒤에 저집쥬인 갈마라난즈마 맛참서
 넷이 작반하야 그위길로 너려오다 교구의안젧는 나를보고 불눈곡저하고

살러너여 두루쳐업고 그산넘어 이집으로와서 뒤스 간에도못가게 썩잡아두고
 괴어히져와살차고 죠른이 너 너다려 인제말이지 나는임의 너의딕사름은안
 인티 서문안 사는 최서방이라는 사름과 빅년살즈약조마 단단히 잇슨죽 세
 상업서도 그를츠자야 홀터이기로 지금간신히 틈을타서 도망을 호난티이
 다함입기로 소인이 못기를 그덜터이면 무슨티스로 산중에다 교군을 너려노
 코마라하얏나나하온죽 아씨티답이 일이 이디경이넛마 불고레면하코 말을
 헛지 그썩논너다려 말하기마 붓그러온싱각이드러 네마교구곳 너려노코말
 죽어마면 슬몹이 서스길로짜져 최서방의집으로 마자는 작명이라서 일이그
 룻되노라고 이디경에이렛스니 나도흔일호노라고어서 서문안으로만 디려다
 들나함입기 열마썩 다형이너여 티리고 가오라 함입난차에 저괴잇는 갈쥬
 영 차두형이가 동리놈들을 모라마지고와서 소인을 들입다 두달리면 이놈
 네마웬놈인티 남의너편네를 썩아서마는나 마는나하면 저괴집스랑 썩에다
 잡아다살니고 사쥬리를 푹푹들고 형남구류를하더니 오날은잡아올니어 저
 괴네마음티로 무슨소리를조희에다 쓰고 그썩히 소인에 성명을스더니 슈장
 두라고 위협을하기 죽지못하야 슈장까지 두었습니다 엄정지하에 당장갈모
 다려그조희을올이라 함입서보시면 저세동축하실터이올시다

출영과두형이마 구두쇠의 그모양으로 빅쥬무근지설로 열거말하난 것을듯고

분심이 될 줄이야 무엇이랴 말을 할라 하면 군수가 소리를 질러서
이놈 잔소리냐 무엇이냐 구두쇠에게 억력으로 수장 밧은것을 이리 올리어
라

두형이냐 구두쇠 말을 듣고 군수냐 덩녕 그 조희을 올리 말줄을 짐작하고 밀리
슬며이 쓰집어 버어 보선목속에 드 감추고 역시속여 뒤답을 할드

(두) 더놈이 모드 무소을 시드 그놈의 수장은 무엇에 쓰즈고 밧앗겟습냐
기곳하면 밧치드별이 오닛냐

(군) 이놈무슨 소리야 당장 밧치여라 네몸에 뭐냐 도라냐도 못 밧철냐

(두) 미말고 당장 죽여도 업스냐냐 못 밧치겟습냐

군수냐 텨동곳치 을너도 보고 은의로 달년도 보고 뭐고 썩려 보아도 일항 업드
고 밧치지안이 할난지라 심지어 두스름에 몸을 모드 뒤지어 보와도 업스니 군
수냐 제물에 지쳐서

(군) 오! 고만두어라 관정에서 처결함이상에 네냐스력으로 득표 밧은 것이 몇
빅장이 잇기로 상관이 잇느냐

계집듯거라 너는 러씨문중에서 득죄를 할야 썩거나 왓스즉 러씨의 집과는 남
이 되더이오 최모와 간련이 잇서 지식까지 비엿더라니 최모가 살지 안겟다
할기 전에는 서촉을 가더리도 최모의 사람인즉 네 아모리 갈가와 살고져 할

티도 안이 될터이다 만일 일항 이심을 품고 최모를 빅척하는 동시이면 당장
관비를 막아 천역을 식일터이니 네알어 할 것이 오 또 갈가로 말하면 소당은 너
의를 학치를 패여도 죄가 남겟다 만은 이민여즈(愛民如子) 하는 내 처디에 득
별히 용서 안이 할야 줄슈업서 고만두는 것이니 추후로는 그런음득한 믿음으
로 남의 제집을 강탈 할라 말고 심분회기 할야 양민이 될지이다

차가 너는 나의 관하 빅성은 안인가 보다 마는 린구 빅성은 내 빅성 안이 겟는
냐 신수가 저만 할고 나히 절문 것이 아 못 조록 조신을 단정히 할야 법률에 저
축이 업서야지 남의 제집을 빼아서 중미 할야 주기로 종스를 할다 난 필경은 네
몸이 결단 나고 말터이니 다시는 회키지 신 할야 그런 형실을 버릴지이다

로파 이리 갖가 하셔 소 점은 것들과 달나 보아 할나 나하 류십이 너 가는 사
름이라서 저각이 그다지 업서 소위 주인 되느자가 못된 짓을 할거든 밧을 벗
고 말이 지 못 할고 오날날 이런일이 업슬 줄 알고 그 수응을 할야 주고 잇서 늑
은더이 안이면 형벌을 당할 것이로되 특히 용서 할는 것이니 이길로 나야 갈
가의 집에 잇지 말고 상당촌 집에 가서 안잠을 자고 라도 엿어 먹고 지너 렷다

로파는 목이 곳은 사람이라 손스 벼을 썩 썩 치며

에 구하는 남 마음 소서 우리 뒤 서방 남씩서 처음에는 더아 씨를 누구 신지 모
로시고 저의 뒤 축동에서 목을 뒤아 들르 신 것을 구제 할서 약을 써 가며 치

료를 식이 시키는 환거로 계신터이신잇가 작비를 하시지 않셨더니 차셔방님
 에려승지덕아씨로 식여머니를 잘못맛나 그다경되얏는 말씀드리시고 남
 편잇는 량반의게 살례화 믿음두신것이 잘못되셨다고 즉시남미지의를 미즈
 사고 더놈 구두쇠 여덩이나 저자안은놈을 문초를 하시일이 잇섯담니다 청
 빅미갓흐신 더아씨에게 원흥호누명을 써우시지말으시고 두셔방님께도의
 덕훈말씀을 말으시오 원님께서 뉘청을드리시고 이리시는지는 모로건이와
 만일 구두쇠놈을 장상에 죽이시고 저아씨를싸아서 가랴던놈을 단단히본보
 기를 뉘셔셔 선처하시논 것이지 그러차안으면 똥항리시을사다
 군슈가듯다가 똥항리소리에 반즈가났다고 뉘면서
 이년 똥항아리 저런무업호년이 잇의잇슬고
 좌우를 도라보며
 내 저년야강이에 똥을쳐너어라
 로파가 소리를 더질너서

똥은뉘입에 웨너으시라오 거짓말하는놈은 뉘여노코 참말만하는 뉘입에 똥
 을너으셔오 거짓말로 원임을속이난 저놈구두쇠 입에다 똥을너으시오
 (군) 스렁블너 더년주동이를 짓써어노아라
 (스렁) 예1의

항고달너들어로파의 불등을 쥐어질으며

(스) 언의존전이라고 아러케 황설 수설하고 섰서

(로) 이놈야 니가황설 수설이야 내가관뜰에서 막들마저 죽는티도 바른말은
 혼다

군슈가 로파를 가리셔씨리는 수눈업고 스렁을식여 덜미를잡혀 관문밖그로
 멀죽이니쫓고 춘형과 두형은 아죽장방에 구류를식인후 최자를볼너 박씨
 를뉘여맛기며 호난말이라

(군) 박부남말드르오 앓가는 뉘가분명지도에 호년을호며 말을허야지마는 쥬
 금도로허호지말고 괴위최모에게 몸을허락호 이상이니 아모쥬록 믿음말
 정호대가져 만라호흔 전정을 그르트리지마르오 이처럼일은후에 만일뜻지
 안이호고 고집을호얏다는 그제내내 일호도 용셔를안이호고 앓가호던말
 파곳처 관비정속사지라도 호러이니 김허성각호오 옛적에도 두번식집가렐
 녀(再醮烈女)된일이잇스니 러씨집과는 팔조소관으로 남이된이상이나 패림
 홀바1업고 최씨에배는 슈티사지호엇더라아 싸라가서잘살되 더무지호갈
 가가또 무엇이라고 감언리설을 호티도 더스호고 비각호렐다 내가엇의사
 지 슈소문을 할터인즉 극하쥬의히
 최모는 환거하는티에 장가들나호는것이 불서례사이나 허구만은 집안의 호

필더러 헌녀즈를 엿어가지고 이러흔공파를너노 인제는 일이 잘귀정되앗스니
티리고나아가 말업시 잘살되 만일 일호라도 더너즈를 팔시하는 폐단이있다
는 죄를면치못하렷다
구두쇠너는 외모난최모를 위하야 고싱흔것이 지만은 너용인즉 네상면의심
부름한것이니 가위총실흔 하례로다 이돈심원을 상급으로 주는것이니 물너
가잘잇스라

구두쇠가 북복샤례를하논디 박씨는 악이박삭나서 관뜰의다 머리를쌍쌍부
디져 류혈이랑조하며

여보시오 당선이 일군 조목지관이되야서 송소를 이레케도 억울히하시오
내가 하상 형실이글너 려승지덕을 저말린척이업거늘 관장이되셔서 루명을
억제로써우고 달은놈을싸라가 살나하니 이런정스가 제상에 또 엿의잇스릿
가 나를이자리에서 스지를 찌져죽인디도 그런관령은 거행할슈업쇼이다
군슈가 발로마루를구르며

(군) 이건무슨잔소리아 량반의집 조식이기로 별반디접하야 은의로만 이르니
가 도로혀 형설 슈설 어! 괴약흔것이로구 이왕에는 아모리 려가의게집이
라도 지금와서는 려가의 집에서논 너치논터이오 최가에게는 조식서지비
엿섯스니 이난결단코 최가의게집이지 려가의 집에는 관계가 업슨즉 최가

싸라 가는것은즉 제셔방져 싸라가라는 것이어늘 무엇이엇더타고 관정발악
을 할야짓거리노

이때로파는 관분밧그로 다시뛰여와서 손벽을싸싸치며 소리소리질으고 춘영
과 두형은 장방속에 갓치어서 분심을못견디여 쥬먹으로 쌍을치논디

군슈가 다시 호령을하며 잡아니라 살러니라 하다가보닛가 박씨가 입으로선
지피를도하고 소리업시 모로설어지논지라 눈이둥그리지며 최가를급히 불너
이사름네가타리고 나아가 치료를 할야주라하니 최가역시 그관경을보니 겁
이더러나서 게집엇는것은 몇스지가되고 팔조예업는 송장치를일야 이가막히
고 송장만 설을썬안이라 사름이 죽고보면 뒤문제가 필경도치못 할터이닛가
군슈를쳐다보며

(최) 민이더게집을 디려다 살나고논 하얏습니다만은 아죽은 민의스름이라고
할슈업스은즉 민에게너여 맞기실것이 안이오라 직접으로 노쥬간되논 구두
쇠의게 맞기어 치료를하옵거나 아조죽으면 파뭇어 쥬거는 하계하야 쥬시
는것이 도할뜻 하오니다

군슈가 두셔를 못차리어셔
그리면 구두쇠네가 디려가거라
구두쇠가 물너섯다가 뛰여드러와

조인이 무슨 관계가 잇슴닛가 소인은 중간에서 신부름만 할 따름이지 더
 씨가 죽거니 살거니 소인에게는 아모 관계가 업습니다
 이 모양으로 최가는 구두쇠의게다 빼어 밀고 구두쇠난 최가의게다 빼어 밀고
 군슈는 최가가 어서 맞하거든지 구두쇠가 어서 맞하거든지 좌우간 관설에서
 사람이 죽어 조그관직에 관계가 될갑야 이를스난디 정군슈의 형정을 그혼가지
 를 밀어 그남아 빙가지 천가지를 가하 추척할것이라 쇠코똥이 일반으로 락스
 를 처결한난중 무죄혼인민의 기름과 피를 글근죄가 한남건너 두입건너 죠야
 에 청문이파다하니 아모리 권리가 도라하기로 엇지무스하기를 바라리오 관찰
 스가 팔세기어려운 청을듯고 곡호하다못하야 부득이 정군슈를 장파을향앗는
 디 그그별이 불선불후(不先不後)하필박씨부인 괴식혼것을보고 황급히저는
 즘음에 당도하야더라
 군슈가 그그별을듯고 얼골빛이 파랗게되며 슈족을 벌스떨기만하다가 좌우간
 박씨논 처처하야노아야 하겟슨잇가 최가를불너 저는실라거나 죠라거나 괴여
 히너여 맞기라고 불너분족 최가가 박씨의괴식 혼거이무셔워 그랫던지 온다
 간다말업시 벌셔엇디라고 업는지라 구두쇠나잇나 숨혀분족 구두쇠도 짝이
 그른것을보고 벌셔어티로가고 다만박씨는 쓸아티 너머저잇는지라 군슈가 혼
 즘말로

어이이것큰일났고 이놈들이 내게만떠넘기고 모다 피신을향야 다러나구나 업
 천데 덤천다고 원도떠려졌는디 살인혼일이 덤치면 큰일나지를알이혔나
 스령을곱히불너 최가나구두쇠나 들중에혼아를 불너오라하니 스령이티답할호
 고나아가더니 한구후에 드러와서
 (스령) 최씨와 구두쇠를 아모리쳐저도 발셔엇의로갓는저 도모지 알슈업습너
 다

(군) 그리면 이노릇을엇지하면 토란말이나 갈가와 차가는 장방에그저잇슬터
 이니 이말더말할것업서 그두놈을불너 저계집을너여쭈어 쫓츠버리어라

이떡에 춘영과 두형은 장방에갓치어서 군슈의불법처리와 구두쇠의 음흉혼것
 이 절치부심이되는중 박씨부인의 성사를몰나 궁금하야 이를쓰든츠에 쫓박계
 룩방관속이 술렁술렁하며스령이나와 급히드러오라 부르더니 괴식혼박씨를
 닐여맞기며 어서다리고 나아가라 저축이비상혼지라 두형이가 처음에는 군슈
 를보고 말마디나치밧치라다가박씨구원할일이 급히셔 나오느말을 도로셔리
 답시고 박씨를 들너업어다가 읊너엇디혼 켜쭈집에다뉘이고 구호를향며 춘영
 다러말하느것이라

(두) 형임이리와셔 슈족쭈우르시오 니가약국을쳐져가 약혼첩 지어가지고
 을것이니

로파가 압호로오며

(제)가 좀으를 것이니 걱정말으십시오에 그 가슴이 점점 더 위웁니다 아모념려 마르십시오 이아씨께서 이러케 괴식을 몇번 사지하심잇가 더거번에도 두번이나 괴식을 하시지 안이 하섯슴닛가 가슴이 이러케 찢달하야오고 손에 딱이 이러케 튀던이 잠깐 처여나시던데오

두형이가 약을벌서 지어가지고 드러오며

(두) 형님 누나가 좀 처여남닛가 이약을 급히 디려 조금씩 조금씩 입에다 흘려너오면 즉시 뛰어나리라고 하여오 그런데 정군슈가 웬일인지 지금 스인교를 두피를질너 황황급급히 서울로올나갑디다 무슨 급한일이 잇슬싸오

(갈) 글세그럴자가 잇지히서 그러케갓노

주인이 약 디릴 불을 피여다 드려노으며

(유) 원님이 장파를 당하셔서 지금 놀나가섯담니다

(두) 응응 내엇전지 형식이 더 단히 황망하더라 그설로공스를하고 장파를 잇

지안이당할고

그약을쓰즈 박씨가 츄정신이 드렸는디 식골이라는데는 겪은일이고 큰일이 고 소문잘나기난 서울몇갑절이라 박씨부인괴식 헛슬씨에는 죽었다고 김지가 리지의게전하고 리지가 박지의게전하야 슈군 슈군 무슨먹고살일이나 난듯이

일을삼더너 박씨가 뛰어나닛가 또 도로살아났다고 이사람이 더사람을 보고 리약이 신통하니 다행하니 천명이니 하며 짓거리논말이 편견갓치 구두쇠의귀 예를가니 구두쇠는 박씨가 아조죽은줄알고 뛰어나와 최가와긱치의 쥬막예를나와지고 하회가엇더케 되얏는지 궁금히서 짐짓묵으며 소문을담지 하다가 박씨가 회성하야 방장갈씨차씨와 언의귀쥬집에잇다는 소문을들듯고 분 분히 쥬막으로나아와 최가를보고

(구두쇠) 서방님 그녀편네가 도로쳐어나서 지금갈가와긱치 음닉귀쥬집에잇 담니다 그러케 살아날줄알앗드면 원님분부디로 다리고 올것을그리히지오

(최) 제가 살아슬슈가잇나 입으로피를 더러더러드하던데

(구) 에구참말이올시다 저도처음에는 그말을들듯고 기연미연하야 그귀쥬 리웃 집사지가서 무러보앗셔오

(최) 그리면 쥬져할것이 무엇잇나 우리당장가서 차져오지

(구) 그리기에 말이야오 어서가심시다 원님씩서 서방님더러 다려가라고쳐결 을 하섯는디 어림업시 그놈을슈어보디오

최가놈이 구슈장파된것을 웃지히서듯지못하고 긱씩의세를하야 것침업시 구 두쇠를압세우고 음으로드러가 박씨잇는귀쥬를차져가서 주인을천등긱치를 너넨다

(최) 여보주인

(주인) 누구시오
흥며 마조나아가니 구두쇠가 넷날형한량사 스령이 죄인이나 만난듯이 와락
타여들며

(구) 덕이주인이오

(주) 예그러홍오

(구) 여보덕에 나그네가 몇명이나 드렸소

(주) 그것은웬뜻쇼 덕이 누구신디

(구) 무를만흥기에 붓는것인디 누구는 알아 무엇흥려고

최가를도라보며

서방님잘못흥면 뒤로시겟습니다 안으로드러가 보십시오

최가가 구두쇠의말을듯더니 불문곡직흥고 압서서안으로 붓적붓적 드러가니
주인은밋쳐 것잡지못흥고

더런무경게흔친구가 세상에잇담 아모리 이런영업을 흥야먹기로 뇌외지별
은잇는디 함부루 뇌영들입을흥니 이케웬사뉘이람

최가뒤에 쓰러드러오던 구두쇠가 안방건넌방을 휘々들너보다가 쓸아리방문
을 덜척열고 드러다보더니

여보아씨 웨에와잇쇼

출영이가 관덕에서 그놈의무쇼를듯고 이가갈니도록 분흥던츠에 쓰와서 짓거
리는양을보니 참을슈가업서 와락마조나오며 구두쇠를 보기쫓케한번 발길로
탁쳐더니

이놈아 이씨저죽여도 죄가남을놈아 아씨웨에와잇쇼 아씨와 잇는것은 알라
무엇히

구두쇠가 마조덕여드러 출영을씨리야흥며

(구) 너는법도 모르느냐 관가에서 다불게 처분흥신터인디 염치업서 저아씨
를괴어히 디려다노코 이리흥게

(갈) 관가처분 관가처분이 엇더흥단말이나 썬々흥고 흥척흥놈 네쇼위 관가
처분도 우리다려 디려다치료를 흥라흥앗슬썬더러 우리는 그런불치의관가
논 알냐면알고 모르라면 모른다

최가가 출영의말을듯고 큰장물이나 잡은듯이 팔을썬며 압흥로 타여들더니
이놈들 너의가 엇더케죽으라고 관장을불치라고 비평을흥느냐 너갓흔놈은
단단히 버릇을 가라쳐노아야흥겟다

(두) 너는 웬놈인디 나셔서 구슈의 귀웅전을쫓드며 타여드느냐

(최) 오나는 저기잇는 저계집의 서방되난스름이다 예로부터 말흥기를 서방

잇는게집은 법도안이 무려간다난디 너의들은 무슨썬죽훈수가잇서 남의게 집을 세여다가살나고 불의힘스를 함부루하느냐

두형이 손에집히는티로 장작갑이 한아를가지고 최가놈을 한번닐쳐셔리니 구 두쇠가 최가의맛는것을보고 눈을불릅뜨고 달려드러 두형의가진 장작갑이를 썰어서들고 좌충우돌을하며 이사름치고 저사름치고 입에못담을말을물퍼붓 듯하야 육을흔참하난디 관청에서 현령소리가 덜렁덜렁 긴디답이 련히나더니 범가흔사령들이 우둥우둥나와 야료하난구두쇠 싸귀흔번을 썩 붓치고 이놈아 웬야단이야 잡히였다가자

하더니 구두쇠를몬져 결박을하야 니세우더니 최가와 춘형 두형 모조리 목거 관령으로 드러가난디 최가와구두쇠난 잡혀가면서도 련히썰니줄곳흔 세를스 다

(구) 오이놈들 인제견디여보아라 원님께엿쥬어 반죽죽여노을러이너

(최) 아모렘우리가 이실직고만하교보면 명철홍신관가에서 그저게실리는업지 갈춘영이난 잡혀가는곡절은 모로지만은 그놈드리 구슈장파만난것을 알지못 하교 의제를하야 짓거리는것이 우슈어셔 구지그놈들에 비위를 건디리노라고 (두) 이놈아 귀응면작작썩어 구슈는죄 업는사름 성으로회를 천다더냐 우리는 그싸위불치구슈난 일호도 겁을안이닌다

(갈)즈네말이올희 구슈가썩々하교보면 제상전 육뢰이라난놈과 스부가 유부 너세티라는놈을 본보기를못닉고 무죄훈우리다려 무당지척을올싸 손톱만 치라도 겁닐바삭이업지

구두쇠는 그리할스득 더세를써서 올으교 최가는두스름의말을 모다가삼에다 치부를하야 두며 속마음으로

홍얼빠진놈다보겔다 원님도약하교 우리도 겁이만은탓으로 계집년 괴석호 는바름에 놀나셔 일이물거젓지 인제는계집이 성션곳치 썩여난터에 무슨고 기할것잇나 너의놈짓거리논 말을약념을 만히쳐서 잔득을가너어 혼쓰임을 하교 계집을 티러가리라

하교조곰도 겁이업시 잡혀가더라

그씨 리평보가 은네를 티러다두고 구씨에지휘티로 엇의로쳐치 하라훈죽은 네는 은근히 두형에회보를 눈이빠지도록 기디리노라고 아모디도 가지를안이 하라고 이리핑계 더리핑계 고집을하난디 그스정을 말하즈면 실로 과가막히 더라 평보의외보난디는 레스로온듯 눈물흔져을 뵈이지안이하다가도 밤이이 속하야 혼조자는씨에나 뒤등산가흔디 아모도업시 올라가셔 하염업시 눈물이 더벅 더벅 옷압해가 썩러지며 혼조한탄하난말이라

에그 세상에 데일얼려온것은 사름기디리기지 차셔방님이 열모로썩어보아

도 실업자를 안이하게 뵈이난뒤 한번 나가시더니 장근 심여일에 도모지 회보가 업스신이 이것이 웬일인가 우리아씨를 잊의로 멀리 보낼것을 탐문하고 차즈가서서 이러케 못오시나 잊의가 편치 못하셔서 치료하노라고 이러케 못 오시나 그도 그러치안은것이 아씨가 말니가 신소문을 드르셨드리도 뒤에는 단 여셔이러타 말씀을하시고 차자가섯슬터이오 병환이나섯스면 면인급보라도 하섯슬터인디 이케웬곡절일싸 눈이센지도록 기뻐려도 도모지안이오시

지

궁흥그악훈구씨는 그착훈며느리를 최가놈에게다 팔어먹고 알런니센진듯이 시원하게 녀엿더니 중로에서 도망하얏다는 괴별을듯고 이왕 바든돈을도로도 최가의게 녀여줄일이 압갑기도하고 녀여준디도 최가가 순々히 잘바다 같지도 몰나서 구두쇠를 올으고 달녀어 스면츠드라하야 녀여보내고 공공싱각훈죽 평보의게 붓잡아둔 은네도 진작처치를하야지 그티로 오리두었다가 또무슨중병이 싱길난지 알슈도업고 중병곳싱기면 박씨찾는일에도 엇더훈영향이 밋칠 난지 알슈가업셔사 은네을향로박비 손아귀 싸싸훈즈를쥬어 의인상등을못하도록 하라고 전인득축을하니 평보는 소곰심을 몰로살나하야도 구씨에분부라면 감히거역지못하난 위인인중 잘하면 전천이나 싱길일이라 그길노나셔서스면련비를하야 중비이천량을받고 식집을보니라난디 은네는두형과 약속훈일이

잇스닛가 더스하고가지를안이흐다

(은) 죽게된인성을 구제하신 은티도 티산곳스은중 또이처럼 쥬션을하셔서 출가를 시키시라하시니 엇지감히 반티하오릿가만은 식집가가 급지도안습고 염치업사오나 아직얼마간 뒤에도잇게하야 쥬시면 정구지역을하야되 은혜를 만분지일이라도 갑자하오니 통축하시기를 바라느니라

(평) 안이될말이지 네말인즉 그득하나 다행제가 군식구를 더두고 먹일 처지도 못되고 또난 임의남과 약도를향앗스즉 점잔은러에 실언할슈도업스즉 쓸터업는 소리말고 어서떠나가거라

(은) 저는 압만히도 갈슈업셔요 아직뒤에서 물씩기라도 거두어먹고 잇습다가 죽던지 살던지 할터이야요

평보가 화를버려녀어

(평) 아 소견업는것아 네가 다행이나 내누의나 일도 당도 안은것을 경상이치 근히서 집에다 다려다 두고 녀지못훈 우리형제에 그만치 먹였스니 적이 럽치가잇는것갓흐면 녀가 오말을 안이훈디도 제가몬져 무슨변통을 하야야 가할터인디 내가일사것 저를위하야 가훈훈 혼쳐로 식집을보니라난디 무슨

큰 빛이나 바드러온것처럼 심뻬를쓰며 안이가갓다하니 네가무슨덕이나

(은) 그티도 저는죽어도 못가겟스니 몇칠만 참어쥬십시오

(평) 몇철을 참다니 몇철후이면 무슨성슈는 날일이 잇슬듯이 지금이나 몇철 후이나 가기는 일반인티 너신용일코 남의손히되고 몇철 기다일것이잇느냐 잔말말고 어서떠나가라 그야네가 너설이라도 년의가 장성하면 이정을 떠 여 식집보닌난것은 당연한이치안이나 더구나 네가 내게 얼도당키나 할다고 집에다우두커니두고 보겠느냐

두이 설여갓더라

은네가 아모리 못가갓싸고 교집을흥나 독불장군으로 엇지항리오 평보가 화를너여 덜미를쳐서 너쫓다심히 교군에다 담아내어 썩메여가난바름에 스세부득이 설여갓더라

은네다러간 사름은 별사름이 안이라 양주읍너 로좌슈이니 로좌슈가 나히오

심여세에 일절혈육이 업슴으로 즈녀간 성산을 흥야보라고 젊은첩을 광구흥 논중인티 동리사름 하나히 서울노 흥랑사리를갓다가
그럼 더령 굴너 감은들와서살며 히마다 빙고에종스항야 지니는티 동리간 썩 안이라 평보가 빙고의 뒤돈을티여 준고로 평보의집에를 데상전이나 지지안 케다나다가 은네에스실을 목도항고 로좌슈복첩 항라는 이략이을항너 평보가 반가히녀여 주시 그즈식이잇스므로 좌슈에게 쇼키항야 돈이현여금을 밧고팔 아먹은일이라

로좌슈가 은네을 다려다노코 흥은용이 여의주어르듯항며 아름다운 인연을어

서미져 썩독겁이웃흔 아달을 나야불 작정으로 잔두셔드난판이라

이이 방의불을 좀 낮게써여라 요스이 성랑씨가 되야서 선선항더라 저녀발을 일죽짓고 반찬도 좀 초려라 길에오노라고 좀 밧쳐겻느냐 썩 그리고 저 리상우에 싸아둔 금침을너려서 더은아리목에 접화좀항야라 여름너 안이던 던 것이되야져 루리가 쳐엿슬터이다

한참 이리셔드논티 은네는 감은들서 교군탈떡에는 몸부림을흥다심히 야단을 쳐다가 평보의셔드난 모양을본즉 섬섬 약질의녀즈몸으로 더항항는슈가 업슬 듯항야 너심에작더항기를

오나 흘슈업다 엇의가보즈 설마나디려 가논놈도 오장육보가 잇난스름이지 즘싱은안일터이니 나의진딩 스실말을흥면 더도소견이 잇슬터이오 만일일 항금슈의 흥실을흥라 항거던 무슨들을라던지 내목숨 하나를쓰어서 쳐저는 우리아씨께 사죄를흥고 들저는 차셔방님 은혜를 저바리지말이라

항고 아모말업서 그교군에담겨서 양주읍 로좌슈의집에를 왔는티 그집식구와 이웃녀인들이 서사름을 더러왔다닛가 닷호와 구경을와서 주착업시

에그 암면도항여라

에그 어열부기도항여라

에그 이대령같은 처복도 토호시지 을에몇살이오 아마 스물이 아즉못되얏

지오

더러케 과년호도록 식집을 안이갓슬싸 벌셔 로좌슈님과 천명연분이 되야서
이씩싸지 편발 처녀로 잇섯던것이 지

한참 이리홀즈음에 로좌슈가 큰기침을 두어번호며 드러오니 말뜻은 녀인들
이 어스출도 만난듯이 뒤문 압문으로 모다 쫓겨나아간다

(로) 웨들 그러케가시나오 더안져 말슴이나 호시시오

(하녀) 령감님이 드러오시닛가 그러케들 가신담니다

(로) 나 드러오기로 그러케가실것이 무엇잇나

호며 방으로드러오니 은네는 얼골에 모닥불을 담어붓는듯이 고기가절로속
으러져 마조보지를못호는티 로좌슈가 껏히와 안즈며 쉼々웃더니

붓그러올러이지 과부로 키가온터도안이오 처녀로 셔투른집에를 왔스닛가

엇지 붓그럽지 안아홀리가잇나 티러오기는 사제가 엇지홀슈가업셔 이모양

으로 두셔업셔 티러왔지마는 이제도흔날을 가리여 룩예를 갓출런닛가 아
모관계업셔

호며 궁금스증이나서 은네에얼골을 물그림이 한참보다가 샘씩놀나 와락달녀
들어 은네고기를 잡아이리키며 이이 네가 은네가안이나 이케웬일이나

은네가 그말을도르니 정신이 번쩍나서 로좌슈를 쳐다보더니 마도 티어 드러

로좌슈 무릅압헤가 턱업티이며

에구 아버지

로좌슈가 은네의 머리를 쓰담으며

(로) 이이 울지말고 니러안져 리약이를호여라 네가엇지히셔 게와잇섯더나

(은) 리약이를엿줍시오

호더니 훌훌 늦기며 작구 울기만호다 그척 상하집안식구들과 동리녀인들
이 로좌슈가 드러오노것을보고 모다 피히나와 들이슈작호난것을 드르라고
문틈으로 세웃 세웃호다가

의외에 아바지나 딸이나 호난양을보고 모다 티경소괴를호야 숙덕공론이 이
러난다 엇던녀인은 변덕시럽게 손벽을 탁 치며

에그 더러변보와 이대령감다려 더척시가 아바지라네 령감이 웬더런 딸이

잇던가

엇던녀인인

글세오 세상련하에 알슈업는 일도잇소 아마 이대령감게서 소연난봉 부리

실뎁에 엇의가의입을히셔 더러딸을 나아두섯던것이오구려

엇던녀인인

쉴사지 나아두고 엇지면 그티말슴을 한마디도 안이호섯슬가 대범도호시지

엇던 너인은

그런말씀을 엇더케하시오 번연히 도라가신 마누라님성미를 알으시며 그마
누라님이 성서에 그런리약아를 드렸서보오 오랴야단을 처셔서집안이 소요
희겟소

엇던 너인은

에그 아오님말이을소 그마누라님성미를 나도 익히알건이와 즈그령감이 외입
을히셔 열서지나아단 말을드렸스면 곳성스지패가 낫슬터인디

물적모로난 계집사름들은 저의짐작으로 이모양으로 짓거리다가 각각 헤여
져갔는디 은네가 올름을 전정하고 전후형편을 차례로고하더라

로좌슈가 본리 양주읍성장으로 일즉 부모를여의고 경향으로 의지업시단이
다가 양천읍으로 되릴스위를가서 삼십이넘도록 사는동안에 박씨의 천덕에를

긋가히단이엿는디 즈녀간 혈육이업서 남의지식을 극히 귀히함으로 은네를보
면 사랑히셔 우리들 우리들

하니 은희난 귀히함은디를싸르느리치라 은네가 로좌슈다려 아버지 아버지
함며 잠시를떠나지안이하다가 로좌슈는 고향으로슬권을 향야오고 은네는박

씨의 교전바로 려승지집에 잇슨이후로 근 십년동안을 소식이돈절 향앗는디
글랄자라도 박씨가예서 양천곳 그저살앗스면 련신이 간간히되야 은네의 잘

잇고못잇는것을 더러드릿스런마는 박씨가예서호중으로반이를가고 려승지
집에 죽척이서어히 지년곡절로 은네를 그지경으로 다려오면서도 막연히알지
못할것이라

(로) 오—은네야 어서리약아를향여라 나는너의딕에서 호중으로이스가신뒤에
너도상전딕을싸라간줄알앗더니 너는엇지희안이가고 서울그저 떠러져잇섯
드란말이나

(은) 에그아바지씩서 양천셔 떠나신후로 언의날 뵈옵고심지안은 날이업스오
나 게신티도 알슈업고 저도저의 자근아씨를되시고 서울식딕에와서 잇섯담
니다

(로) 응 너의딕자근아씨 교전비로가잇섯더니 참그자근아씨게서 식집살이나
잘하시고 너는엇지해서 감은들 리가에집에와 잇섯더니

은네가다시 흥々늦겨가며

(은) 아버지 저의딕자근 아씨게서지금 엿의가게신지 저는알지도 못합니다

(로) 이이네말이 웨그리두셔가업시 회설슈설하느나 금방교전비로싸러가잇섯
다하더니 또자근아씨 게신티를모른다하느냐

(은) 아씨게서 식집을가신바에 남편은아조극가항시게 맞나섯지마는 식어머
니를몹시맛나셔서 고성하시던이약아를 이로엇지다하겟습닛가

(로) 더러 내가 그 뒤에 단일적에 그 덕일곱살인가 되야셔 너와 짝이 되야 단이며 작난한것을 익히보았지마는 아조 천품이 착하고 장취성이 잇서 비이던데 식집을 잘 못가셔셔 그 고성을 향앗고나 그러셔 엇더케 되었니

(은) 그 식어머니에 성이 구씨인디 그 무던한며느님을 삼시로 들들복다 못하야 그 씨님즈근아씨 처란이와 여호되랴다가 사름된 이 희종년 추일이와 한창조를마조이어셔

아씨임을 무슨 피덩이를 못다넛코 락티를향섯다고 성모함을잡아 식아바지 령감눈에 아조나게향앗지오

(로) 뇌외가즈니가 슈티항기가 의례의일인디 그게무슨 모함될것이잇느냐

(은) 웬 뇌외가즈게 배심잇가 홀로게섯지오

(로) 홀로게섯다니 신랑이 웨불헿헿엇가

(은) 안이랍니다 서방님게셔는 동경으로 공부를향러가시고 뒤에안이 배섯담니다

(로) 응 동경으로 류학을갓셔 그러셔다음일은 엇지되었느냐

(은) 령감게셔 이왕에는 며느님에 말삼이라면 극력탄로향섯는디 일즈락티향앗다는 모함을 드르신후로는 눈을바로 썬보시지도안으시고 일일이미워만 향시더니 또우엇이라고 참소를 드르섯던지 별안간에 천덕덕으로가라고 죽

불이더하게 쏘츠시는데 제가 춤다 못하야 말마디나 바른소리를 향앗더니 마님 열길 스무길 뛰시면서 잔득 묵거미야 달고 사정업시 썬리다가 아씨 교군이 썬나가신저 혼구후후에야 글너노으며 아씨를 썬아 충청도로가거나 말거나 네성각티로 허라기에 압흔다리를 잘잘썬고 열덜결에 동작이를 건너셔난 다리도압흔고 허기도져셔 오도 가도못하난 즘음에 웬 스름이와 보고 샘씩놀나셔 저의 짐으로 인도항기에 누구인지 알지를못하고 세상에 고마은 량반도 잇다 아모렷던지 압흔다리를 썬고 그 스름을 썬라 갓섯지오

(로) 그리셔

(은) 그동리난 감은들이압고 그 사름은 리평보라난 자인디 저의 뇌외가 제게티하야 극하고 고맙게 굴기에 진심으로만 알고 엇의사지 감사하야 천부모나 다름업시 속말슴을 다하고 충청도 아씨 천덕으로 가게하야 달나고 향앗삽더니 오나 감안이 잇거라하며 지닌난디 리가 뇌외가 잇다감 슈군디 난것이 슈상하은중 하로난 체전부가 편지를 들여가라노디 제가 마춤 밧게를나아긋다가 그 편지를 밧아 피봉을 보오닛가 글시가 여합부절려승지딕 마님 천필긋습기로 의심이 더러나셔 드러다 전치를 안이향고 물너썬여보온죽 과연 그 마님편지인디 리평보와 그 마님과 갓가온 일가가 되는모

양인디 은근히 무슨 약속이있서 저를 저의집으로 데려다 둔것이야요 그런
 디 그 편지에 말하기를 은네가 만일 제상전의 거취를 알면 일이 안이될터
 이니 감쪽못치 속여 붓잡아 두고 내 괴벌을 기덕려 처치를 허라 하였셔오
 제가 그 편지를 보오니 아씨 일이 었더케 되섯는지 괴막혀 그길로 뛰여
 나셔 사면팔방 초자 뵈옵고 심으나 리가가 썩 붓잡아 두고 못가게 할모양
 이온즉 섯불이 쥬척되다는 안이 되겟습기 생각다 못하야 일절 스식을 뵈이
 지 안이하고 전보다 더 진실하호며 그 이웃 차셔방 이라는 사름에게 은근
 흔정을 통후야 비밀히 스정을 말호고 상년 아씨 거취를 탐지하야 쥬면
 그 은혜를 풀이라도 미져 갑겟노라 하였습더니 차셔방이 저의 말을 얼마
 즘 친은히 드렸던지 그리호라 허락호고 저괴 집에서 썩나 간지가 별셔 슈
 십일이 되었난디 잇셔가지 이리타 소식이 업셔 날마다 눈이 싸지도록 가
 다리고 잇습난디 서을셔 무슨 편지가 오난 모양이더니 리평보가 들나날낱
 여적모의 호듯호고셔 별안간의 교구늘 차려노코져 다려 어셔타고 가라고
 성화독촉을 호오니 제가 처음에는 얼마쯤 앙달하야 차셔방에 회보를 보고
 가던가 죽던가 호즈 하였습더니 평보가 만패불청 듯지를 안이호고 등을
 밀다싹히 가라고만 호오니 홀일업셔 결심하기를 에라 죽으나 사나 가보아
 좌우간 조처를 호리라호고 왔더니 에구 아바지닥이야오

호고 목이메여 작고 울기만호니 로좌슈가 은네에 눈물을 씻쳐쥬며

(로) 이이 올지말고 니말 드러라 너의 아씨도 찾고 원수도 갑홀일이 잇스니
 아모 녀려말고 올름을 진당호여라

은네가 그말에 서로히 정신이 번쩍 나서

(은) 아바지 저의 아씨셔 엿의 계시길니 찾게호여 쥬신다고 호심잇가

(로) 오나 네말 일장을드르니 내가 짐작나논 일이잇셔 그리호다 호고 정군
 슈가 엿던 스름의 청촉을 드고 갈춘영 일형을 잡아 드러다가 억지 공스호던
 리약이을 일스하호고

(로) 니가 드르닛가 그일형이 방장에서 멀지안은 깃쥬애가 잇다호니 사름을
 보니여 알아보아 만일 그저 잇거던 네가 가보던지 우리집으로 청히 오자
 고나

(은) 에구 그러면 어셔 좀 알아 보셔오

로좌슈가 심복호인를 불너 단여오라 호더니 거미괴에 호인이 도라와 구두쇠
 의 최가가 그 깃쥬애가셔 싸음을호는 연유를 고호는지라 로좌슈가 은네다려
 (로) 이이 아가 구두쇠라고 호는놈이 너의 식닥 구종놈이라노는놈이 안이나
 (은) 에 그러히오던호에 천춤 만륙을 호야도 죄가 남을놈 그놈이 저의 식
 닷 구종놈으로 상년 아씨를 더디경에 이르게 호이다그려 제가 시칼이라도

품에 품고 뛰어가서 그놈의 비를 갈고 간을 নিয়ে 씹어 아씨 원슈를 갑옷
드리게 습니다

(로) 응경선혀 굴지말아라 니가 그놈들 처치할 도리가 있다
하고 부분히 웃웃을 নিয়ে 입고 나아가며

(로) 아가 이고을 군슈는 장파를 당하여 올라가고 내가 지금 서리 군슈로 있
는터인데 조식도 업는 사람이 만스가 귀치안어서 청원을 하고 말지더니 네
설치를 불가불 하여 주어야 할것스즉 엇의 청원을 할슈가 있나냐 니가지
금곳 동현으로 드러가 시무를 하고 그놈들을 잡아다가 티덕에 공초를 밋
을터이라

(은) 예그 아버지 그러시면 그놈 정치도 할사려니와 저의 아씨를 어서 좀 비
옵게 하여 주십시오

로 좌슈가 동현으로 드러가 즉시 범가흔 장초를 명령하여 박씨부인 잇는 귀
주로 보이며 불문 슈모하고 모조리 잡아 드렸는데 최가와 구두쇠는 여전히
원에 제를 잔득밧고 갈초양인과 박씨를 텨동 갖쳐 으르며 급히 관정에를 드
러가니 당상으로셔 별안간에 텨동 갖쳐 호령을 하여

구두쇠와 최가를 잡아 드리더니 먼저 구두쇠를 보고

(로) 이놈네가 려승지덕 구중놈 구두쇠 안인다

(구) 예 그러 호오이다

(로) 그러면 너는 그대 하인이오 그덕 먹는님은 네 상연이 되지

(구) 안이올시다 그덕 형편으로는 상하간이라고 할것습이다 마는 지금은 상
연 될것이 업습니다

(로) 그는 엇지히셔 그런고 조제 고향렸다

잇석 최가가 감안히 본즉 정군슈는 엇의로 가고 다른 사람이 안져 말을 하는
지라 좌우를 도라보아 제가 술잔이나 먹이던 로평 한아를 은근히 눈짓을 하
야 감안히 무려본즉 군슈는 업고 시임 좌슈가 서리로 스무를 본다 호는지라
슬며시 속살게 생각하기를

주저남은것 다보겟다 나는 누구라고 제가 좌슈로 군슈업는 동시에 잠시서
리로 잇스며 안이삼게 누구를 잡아다가 이러리 더러리 내가 한번 똑똑이
드리덕여 혼을 쓰우리라

하고 압호로 외락 디어들며

여보대이 군슈 상경호신 스이에 잠서 서리로 잇스면 다른 송스나 잘쳐결
홀일이저 정군슈에서 임의 결쳐호신일을 웨 다시 론난을 호시오

로 좌슈가 분기가 충런하여 스령을 불너

(로) 네 저놈잡아 업혀노코 조흔티장으로 불기에 피가 줄줄 흐르도록 쓰러라

(스) 예의

좌우에 섰던 스령이 와르르 달너드러 최가를 잡아살어 업허뚝코 손가락긋흔
물푸레가지를 마조 찬찬감아 들고 호등을 었더케하며 썩려 노왔던지 평성에
미흔키 안이 마져보든 최가는 셋부른 소리흔마디를 불속항야 뚝코 스정업시
치논 불기멧도를 맞더니 발악흔마디 못항고 정선업시 느러젧던지 구두쇠는
그광경을보니 겁이 었더케 나던지 벌벌 떨기만항고 잇는디 로좌슈가 동헌들
보가 쓰르르 울나도록 고성을항야

네더놈 구두쇠마자 이리잡아 업허노코 죽기흔항고 썩려라

구두쇠의 얼골이 다죽게되야셔 고기를 쫄고 두손으로 빌며 살여주시오 저는
아모죄도 업슴이다

로좌슈가 더욱 노리가 등등항야

(로) 이놈 살녀주어 죄가 업다는놈이 무엇을 살여주어

(구) 소인은 지향자되어 상면 식이신디로 거행할 따름이옵지 무슨죄가 잇
슴닛가 상면이 식이신디도 소인이 거행을 안이하얏다면 도를것을 미련흔
소견에 분부를 거역항다가 큰죄를 당할갑아 할일업시 이디경에 나르릿스
오니 명정지항에 통촉항음소서

(로) 이놈 저야씨는 네게 상전이 안이되나 아모리 괴약흔 심장으로 식이논

사람이 잇다흔디도 아놈네 도리되야셔는 죽기로써 거행을 안이하야만 스
름놈이라 할것이어늘 도로혀 한층 더 상면아씨 학디를 무효부지 항얏스니
네죄가 죽고도 남지안이할샤

어림업는 구두쇠가 로좌슈를 덩군슈만 녀이어셔 능청스런말을 씀여디여 속
여 넘겨보라요

(구) 황송항오나 진정을 항음사코 소인의 말씀을 하문 항음시오

(로) 오! 무슨말이나 었의드러 보자

(구) 더아씨게셔 소인의 상면이 안이 되시난바는 안이올시다 그러항오나 녀
쥬도 목목이오 쇠썰도 각각이라고 소인은 그딕에서 마님거행을 항고 잇습
는터이온터 아씨가 셔방님 안이게신 동안의 외인 통간을항야 슈터셔지항
고 밤마다 뒤스담을 녀어단이며 추흔실이었셔 그딕로 두지못항시겟다고
소인다려 총청도게신 아씨 천정덕으로 다려다 두라고 항음시기 거역할길
업스와 소인이 교군압치를 메음고 방장 가음는터 아씨가 저스항고 셔문밧
그로 나아가자항시니 여시지항조로 거역커 어려워서 가자고항시는터로 츠
셔간다는것이 셔산으로 녀어가는 소로길사로 드러슴니다 그곳에 이르러셔
논 교군을 더러뚝코 술을 먹고오라기에 시장항던츠이라 그아티 쥬막에 너
려가 술흔잔을 먹고 울나가 보오닛가 아씨는 간곳이업고 빈 교군썰이올시

다스면 차져보다가 홀일업서 그연유로 뒤마님께 영쥬앗습더니 마님께서
진로함업서 당장죽일뜻이 으르시며 이놈 썩먹듯이 충청도로 너려다 두랫
더니 네가 이놈 상던뒤에 망신을 식이라고 저가 자는뒤로 산중으로 다려다
쥬엇다고 호시며 당장 차져서 충청도로 다려다 두어야 망정이지 그러치
안으면 뒤막에 썩려 죽이갓다고 호시니 미련호 소견에 겁이나와서 그길로
스면 슈소문함업는뒤 풍편으로 듯조은죽 서산갈씨의 집에 잇다함업기 차
자왔든 터이올시다

(로) 이놈 네말스흐면 더최가호웁놈인고
최가가 미를맛고 업드려다가 고기를 들어

(최) 더놈의말이 무소오 당신이 이고을 좌슈라면서 군슈가 임의 밤게쳐결호
신것을 다 알르실러이지오

(로) 좌슈이니 엇지란말이나 나는 군슈의 처결호것을 모로논 사름이다
(최) 당신이 웨 트집만호려 드르시오 이리면 사름이 멧치는 죽소 군슈씨서
쳐결호신것을 좌슈가 모로면 누가 안단말이오 괴왕 모른다니 너가 다시말
을호리다

(로) 그리셔 너소위말이 무슨말이나
(최) 다른말이 안이지오 구두쇠 더자는 겁어위풍(倣於威風)호야 헛썩어말을

호얏스니 내말슴을 드러보시오 내가 마츰 환거호난러이더니 돈을 사천금
이나 허비호여가며 소개를 엇어 더연과 상종이 된이후로 조식까지 비엿섯
손죽제가 서촉을 가더리도 내게집이 확실호터 러승지 집에서도 그 눈치
를 알고 외타점(外打点)호야 너보너엿는뒤 저놈 같가가 엇디케 싸을 알고
중간의셔 가로차다가 제계집을 숨으려 호기에 이스정으로 호소 호얏디나
명찰호신 군슈씨서 제세히 문초호신후 더계집은 아조 나다려 다려가라 호
섯는뒤 더놈들이 관령을 닝슈로 알고 여전히 계집을 다려가라호니 좌슈장
게서 괴위 서리로 계신터인죽 더놈을 엄치호시고 계집을 차져쥬시오
잇때에 은넨가로좌슈 관청으로 드르간뒤에 곰금중이 성기여셔 견딜슈가 업
논지라 불고 엄치호고 관청으로 드러가 담밭게 숨어셔 귀를 기우리고 엿
듯다가 구두쇠에 짓거리논것과 최가에 말을드르니 나가갈이고 눈이 뒤집히
여 불문 꼭직호고 썩여 드러가며

이놈들아 마른하늘에 별락을 마질놈들야 옥에 티도 업스신 우리 아씨에게
이런 누명을 씨워 무소를호고 이놈 네명에 올케 죽을싸 이놈 어디 낫반뒤
이좀보자 네가 정영 우리 아씨와 무슨일이잇서 슈티까지 되얏디나 나는누
군구호니 그 아씨를 밤낫되시고 잠서 안이셔나던 교던비 은네라는 사름이
다나호고 말쑥히보자 똑바로 말을호여라 공연이 헛썩다난 내손에 비아지

가 끝나질나

최가와 구두쇠가 둔스로 말을호로라니 서로 압뒤동이 맞지를못하고 횡설수설하던처에 천만의외에 은네가 뛰여 드러와 폭박 흥난통에 구두쇠는 고기를 숨이교야모발도 못호는디 최가는 초면에 계집이라 옥박질너 불성감이 들던지

(최) 이년 이 패심호년 드르닛가 네가 나의 처되는저 너편네에 교전비라호니 주나의 하인이나 일반이어늘 말버릇을 흥부루호여 가지고 이년네가지 하즈되여 식이는 심부름이나호고 잇슬것이지 무엇을 아노라고 예! 패스슴스러운년 다보겟고

은네가 일변 최가를 육을호며 박씨의 압해가 턱업디리며 예구아씨

박씨가 은네를 의외에보고 분흥중에도 반가워셔 마쥬겟셔 안고

은네야 네가 엇더케 예를왔느냐

은네가 눈물을 씻고 일어나며

아씨 이일이 웬 곡절이야오

박씨가 생각호기를

내가 이망신을 당호고 살아서 무엇호리오만은 너가 이자리에서 발명을 안

아호고 죽으면 그 루명을 버슬일이 업겟다
호고 은네다려

(박) 이의 감안이 잇거라

호더나 최가압호로 썩나셔며

(박) 이놈아 내가 이썩셔지 창피스러워셔 도모지 키구를 안이호얏다마는 너는 웬 놈이관디져 금슈만도못호 구두쇠놈과 부동을호야 내몸에 더러운말을 밋치는다 이놈나는 슈티호야 본적도 업고 네놈에 코 붓흔디를 본적도 업거늘 이놈 창창호신 하늘이 너려다보는디 무엇이 엇지고 엇지히

(은) 아씨 감안이 계십시오 그석에 아씨를 천덕덕으로 되시고 간다더니 엇지되야셔 이곳에를 와 계십잇가 즈세히 말슴을호시면 원내가 첫저는 구두쇠그 다음에는 더놈과 이즈리에서 스싱결단을 호게슴이다

(박) 천정으로 너려 가는것이 다 무엇이냐 더놈 구두쇠가 교군을 메고 작고언의 산스골로만 디리고 가기로 내가 못기를

충청도를 가자면 동작이강을 건너갈터인디 산중험로만 드려오나 웬곡절이나 흥즉 구두쇠 디답이 이길로가면 질너셔 얼마쯤 갖갑다호니 내야 동인지셔인지 알수가잇느냐 감안이 동정만 보더니 무인공산 소로에다 교군을 너려노코져 아리 쥬막에가 술을 호잔먹고 오마호고 뒤치메고 오던 교구누를 디리

고 너려가더니 한참은 소식이 없는데 맛참 이상스러운 것을 보고 교근문밖개를
 나서서 한거름 두거름 슈풀속으로 드러가더니 그리저 웬놈들이 물너 올라오
 기에 겁이 더러나서 그곳 언덕 밋히가 몸을 감초고 거동을 보로라닛가 그놈
 드리 내게 향야 별별 괴악한 욕설을 다 할며 스면 차드단이난디 런형으로 그
 썩 마참히가 점으러 어두엇슴으로 들켜지를 안이 할앗는디 구두쇠이외 그여
 러놈들이 제풀에 지쳐서 도로 너려가는것을 보고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산을 넘어가니 다리는 압호고 동서를 분변키 어려운중 지척지디에 사람의집
 불이 뵈이기로 초저 드러가 사람을 살이라 할앗더니 그집주인에 신제도 젓지
 만은 역시 심스가 오전치 못할야 나를 파라먹으라 할기애 그눈치를 짐작하고
 그집에서 빼치고 나서서 가다가 생각할즉 점은 녀편네가 그모양으로 나섰다
 가또 무슨 욕을 불난지도 알슈업고 구두쇠놈 일형에게 들기지 말는디도
 업기로 찰하리 죽어 모로리라하고 그동리 출동 큰나모 가지에다 목을 띠엿
 더니 더기 서계신 더서방님께서 구원하섯단다
 할며 갈춘영을 그라치는디 은네가 춘영을 보라고 고개를 돌이다가 차두형이
 그뒤에 섰는것을 비로소 보고 다름질로 썩여가 두형압해가 업드리지며
 에구 서방님

은네는 저의 아씨만 바라보고 최가와 구두쇠의 말을 듯노라고 그것해서 듯는
 두형을 밋쳐 도라보지 못할앗다가 저의아씨가 그라치는 바람에 두형을 비
 로소 보고 썩여감이라 두형은 은네를 벌서보고 반가온디로호면 소리를 질
 너 불으기라도 할엇스런만은 그리고보면 최가와 구두쇠가 흑말을 다 할지
 안이 할가 할야 짐짓참고 잇던터이라 은네에 손목을 잡아 이르키며 도흔말
 로 위로하고 로좌슈를 향할야 절절히 설명을 한다
 (차) 명정지하에 세계 통속할업소서 더놈 구두쇠의 짓거린것은 일호도 올은
 말이 업습고 모다 무소올시다 저놈에 진경을 통속할서라면 이것을 보옵소
 서
 호고 몸에 감초왔든 구두쇠에 슈장둔 공초를 올닌후 저기에 소경역 일장을
 츠레로 다 고평다

본인은 감은들 스읍난 차두형이온디 리평보라는자와 한이웃에서 사논터이
 올시다 더계집 아히가 리가의 집에와 잇는디 감안이 지나단이는 광경을
 보은즉 얼골에 가득이 슈식을 디우고 눈물 말을날이 업슴으로 일변 가공
 도호고 일변 궁금도호야 저를 종용히 맛나라하는 츠에 저역시 소회를 말
 할곳이업서 본인을 싸라 더간에 교정이 갖가와 젓습난디 저의 일담정성은
 다만 저의 상현아씨 거취를 알고저 호이압기로 본인이 비단 그뜻을 가상
 히 너일뿐안이라 남의 일이라도 분흔 마이이 성기녀서 거정말나 허락할고

그길로 나서서 문안문밧그로 아모리 단이며 슈소문을 향야도 도모지 알길
 이 업습기 홀일업시 공환홀 디경이온디 공교허 문밧 술집에서 교군썬에
 짓거리는것을 듯고 박씨부인 교군니려 노앗다던 살길을 츠져가 밋천 스름
 모양으로 이리 저리 형편을 살펴본들 무빙가거 (無憑可據) 이기로 길스가
 에안져 개탄불이 향는츠의 엇더홀 형인을맛나 말말싣헤 본인의 미부 갈썬
 영에집에 도망군이 녀편네 홀나히 있다함읍기 심분의 아향야 서산을 츠자
 꺾습더니 과연 박씨부인아 그곳티와 계신디 본인의 미부는 박부인의 니력
 을 저서하 모로고 한ჯ 도망군이로만 녀이어서
 로좌슈가 마루전으로 밧삭밧삭 나안즈며
 그리셔 그리셔

두형아가 한마디 헛썸지 안이호고 그다음 말을 쏘 저서하고 홀다

(두) 본인이 미부다려 부인의일을 바로일으고 그런싣을 다시 두지말나 할라
 논디 부인씨서는 그졸 더졸 모로시고 송죽꺾흔 지조로 화식이 밧두한줄로
 녀이어 울구멍으로 빠져 도망을향는 즘음에 저놈 구두쇠가 무뢰비를 다리
 고 그집을 에워싸고 엇보던츠에 부인이 도주향는것을 보고 불분 꼭직호고
 달여들어 싣고 가라커니 부인은 더스호고 그놈을 안이싸라 가라커니 향는
 동시에 본인 남리가 장영 몇명을 데리고 급히 쫓츠가 구두쇠놈을 잡고 그

남아 여러놈은 도주향앗는디 본인의 미부 갈썬영이 이왕 자세 알지못호고
 무려홀 싣을 들것을 더부인게 사과를 홀후 인히 남미지의을 밋고 저놈 구
 두쇠를 문초향 앓습더니 그놈이 일일즈복호기를 러승지부인 구씨가 전후홍
 계를 다 닐여 머나리에 모함을 잡다못호야 필경은 최가놈의게 돈을밧고
 팔아 먹으랴향앗는디 더부인이 욕을 안이당홀써가 되야 몸을 피할와 서산
 으로 도주향앗는디 최가는 돈을 구변호야 도로 되거는 사름을 츠저노으랴
 고 구두쇠를 죽이고 구씨는 돈을 뇌어 노기도 원동호고 그며느리가 최가
 에게로 가서 갖치잇지 안이호면 저기에 간계가 탈로될가바 의심이 나서 엇
 더케 변변치 못호게하다가 일엇는나고 구두쇠를 복그니 더놈 구두쇠난 가
 위 안팎 정장을맛나 부댕기다가 저부인이 본인의 미가의와 있다는말을 엇
 더케 엇어듯고 살일이나 싱긴듯이 녀여 최가에게 동지호야 여러놈을 데리
 고 서산으로 왔섯노라고 함읍기 그놈말은 이다음 혹 불의지스가 싱기더러
 도 확싣홀 증거가 못되겟기로 그공초홀바를 일일히 괴록호고 슈장을 바닷
 나이다

로좌슈가 구두쇠의 슈장 그런공초를 퍼들고 축조호야 못논디 구두쇠 이홍악
 홀 창조로 녀녀히 그런일이 업고 모다 갈츠량인의 위조라고도 홀러이저만은
 박씨부인이 것히섯고 은네싸저 참석호앗스닛가 감히 입이 그러케 떠러지저

를 안이 할야 다만 고기를 샅해세고

살여줍시오 죽을죄를 만히 범할앗습이다
로좌슈가 죄가를보고

(로) 이이 죄가듯거라 너 난을아비로 제집을어들이면 어디 가합흔 스름이업서
々 하필불소흔 저물을드러가며 저상가뒤유부녀를 검육코저 할앗고 네죄
는맛당히 당장에죽여싸나 이다음에 또조소할일이잇슴으로 아즉잔명을용
서할것이니 다시는그러한악의를 품지말고 물너가 네집에잇다가 언의날
이던지 너를차질떡가잇슬것이니 위괴말고 디령하라

최가々시세를보닛가 제집못어든일은 절통하라 잘못할다는 제몸에 무슨봉변
이싱길는지 모로겟스닛가 스제부득이 그디로물너갈모양인디 돈스천량히비호
일이 억울할야

(최) 관령이 그러하시니 물너가기는 할겟스나 본인의 돈스천량은 엇의가차
소릿가

(로) 응그는 부정당히스돈을 만번일어도 호소할것이 못되나 필경은 일이귀정
되는날 차저줄떡가잇슬터이니 그리알고 물너가라

최가々다시는 아모말못하고 물너간후 로좌슈가 구두쇠를 천동코치 으르기를
이놈네듯거라 네소위상면이 식이느일 거힘할뿐이라 할것은 미련흔소견

에 후그러할듯하나 그도또흔 그러치아은것이 아모리 상면이기로 멸륜패상
에 악할일을 식이느디경이면 엇의까지 거힘치안이 할야 을켓거늘 너는한
층더할야 빅번죽어남을 죄를 범할앗스니 법률이즈지할거던 엇지살기를바
랄쇼

너코흔놈은 당장에타살할야도 앓갑지안이 할나 그리고보면 너의딕소위 마
님의죄상을 발각할징거하니 업서질터이기로 아즉성명을 못쳐두는것이니
이다음 심사할날마당에 오날모양으로 또형설슈설 할지말렸다

구두쇠가 련히머리를조으며
소인이 죽을흔니 드러 죄를지었습니다 분부더로할것이니 잔명만살여쭙
옵소서

로좌슈가즉시 구두쇠를 하옥후 은네식이어 박씨부인과 로파를디리고 즈그
짐으로가게후후 갈차량인도 역시함께 짐으로오라 할앗더라

박씨부인은 로좌슈에은덕을 못느사례하고 인할야슈양살되가를원할나 로좌슈
가 즈그처디의 한미함을말하고 저숨볼가할다 할나 박씨는덕스고집하고 썰되
기를즈원할야 좌슈니외에게 부모에례로 뵈읍난지라 좌슈니외가 할일업시 허
락할나 박씨가또 은네를볼나 이르느말이라

이이은네야 너는나의게 골육보다더흔 은인이라 이왕에는 노쭈게급으로 지